

# 松岩 羅緯素와 岫雲亭文學

유수양\*

## <차례>

- I. 머리말
- II. 松岩의 生涯와 岫雲亭 經營
  - 1. 松岩의 生涯
  - 2. 松岩의 岫雲亭 經營
- III. 岫雲亭의 樓亭漢詩
  - 1. 松岩의 岫雲亭題詠
  - 2. 文人들의 岫雲亭題詠
- IV. 岫雲亭의 樓亭時調
  - 1. 松岩의 <江湖九歌>
  - 2. <江湖九歌>와 <漁父四時詞>의 相關性
- V. 맺음말

## I. 머리말

나주는 전남의 중서부에 위치하여 동으로 화순군, 서로는 함평군과 무안군, 남으로 영암군, 북으로는 광주광역시와 인접함으로써 교통과 지역의 특산품 물류 왕래가 활발한 지역이다. 나주의 鎭山인 금성산이 동쪽으로

\* 전남대학교

광주 무등산과 남쪽으로 영암 월출산을 마주보고 있으며, 담양에서 발원한 영산강의 중하류가 자리한 일대에는 비옥한 나주평야가 펼쳐져 넉넉한 자연환경 속에 강과 산야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고려시대 태조 왕건이 도읍을 정한 역사적 중심지역으로서 유서 깊은 유물을 간직한 고장이기도 하다. 이처럼 비옥한 나주평야와 풍부한 영산강의 水量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생활터전으로서 살기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어 나주는 일찍부터 삶 속에 문학적 여유가 깎들 수 있었다.

선조 때의 東人 領首인 李潑이 그의 시에서 “人物多賢 民心淳厚”라 나주를 표현하였으며 佔畢齋 金宗直이 나주를 읊은 十二詠詩를 통해 볼 때 어느 고장보다도 많은 누정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아름다운 산수 속에 풍류와 문학을 즐겼던 선인들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sup>1)</sup> 이처럼 나주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산과 평야, 강과 해안을 끼고 형성된 농경문화와 풍부한 산물을 기반으로 일찍부터 山紫水麗한 곳에 누정이 건립되어 문학과 풍류를 즐기는 문학창작의 공간으로 숨쉬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누정은 ‘~亭’의 명칭이 붙은 정자가 대부분이며 화순과 더불어 나주에는 많은 누정이 건립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전남지역의 누정 조사 보고에 따르면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조사·집계된 통계를 살펴보면, 나주지역의 현존하는 樓亭數는 59棟이며, 현존하지 않은 누정이 106棟로 총수는 165棟이다. 여기에 羅壽線 등이 편한 『羅州郡誌』 등 여타의 문헌을 종합해 보면 예전에 건립되었으나 현존하지 않는 누정으로 새롭게 추가될 누정의 수는 131에 이르러 이렇게 살펴볼 때 나주지방 누정 수는 약 300으로 파악된다.<sup>2)</sup>

松岩 羅緯素는 1582년(선조 15) 나주에서 출생하여 1666년(현종 7)에 향년 85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한 조선조 仁·孝宗代의 나주 인물로 후손이 撰한 『松巖遺集』<sup>3)</sup>에 생애와 문학작품이 전해진다. 송암은 35세인

1) 나주군지편찬위원회, 『羅州郡誌』, 1980, 682쪽.

2) 박준규, 「羅州地方樓亭文化的 綜合的 研究」, 『호남문화연구』 제18집,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88, 104쪽.

1616년(광해 8)에 생원이 되고 1623년(인조 1) 42세 나이로 대과에 급제 함으로서 35세 이후부터 69세까지의 出仕期를 마치고 70세부터 마지막 下世하기까지 선산 밑에 있는 錦水湖 위에 岫雲亭을 짓고 岫雲亭文學 창작과 知人들과 교류하며 고향인 나주를 떠나지 않았다.

그의 생애 중 경주목사를 끝으로 致仕隱退期를 보냈던 수운정은 『全南道誌』에 의하면 榮山 三榮里 榮江 위에 있었던 정자로 현재 소실되었으나 그 위치는 지금의 羅州市 三榮洞 山 483 榮山江邊에 해당된다. 송암은 이곳에서 수운정의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한 누정제영과 누정시조 9수의 <江湖九歌>를 창작하였다.

송암의 누정문학과 관련하여 필사본 『羅氏家乘』에 실린 송암의 시조 <江湖九歌>가 1976년 5월 29일 제17회 한국언어문학 학술연구 발표대회에서 박준규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松岩의 岫雲亭題詠과 江湖九歌」<sup>4)</sup>에서는 송암의 생애와 수운정 건립의 배경 및 누정제영, 국문 시조 강호구가 제작에 대하여 소개함으로써 아직까지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송암의 문학세계를 누정문학의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하였다.

본고에서는 17C 중엽에 활동한 나주의 인물 松岩 羅緯素의 생애와 함께 누정으로 인한 岫雲亭의 樓亭漢詩과 樓亭時調인 <江湖九歌>를 살펴봄으로써 서정적 공간과 감회를 조화롭게 표현하여 순수 서정시의 경지를 깊이 있게 그려낸 岫雲亭文學의 세계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3) 『羅氏家乘』을 토대로 1979년 후손 羅容均이 『松巖遺集』으로 편집 발행하였으며, 2卷 1冊의 目次는 다음과 같다.

卷之一：詩, 賦, 策, 書, 江湖曲

卷之二：附錄 詩, 書, 序, 記, 文, 行狀

4) 박준규, 「松岩의 岫雲亭題詠과 江湖九歌」, 『어문논총』 10·11,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 연구회, 1989.

## II. 松岩의 生涯와 岵雲亭 經營

### 1. 松岩의 生涯

송암 나위소는 1582년에 縣監 德峻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字는 季彬이며 號는 松岩 또는 南湖로 본관은 나주이다. 시조는 고려 때 正議大夫 監門衛上將軍이었던 富로 송암은 그의 15世孫이다.<sup>5)</sup> 그를 나주 나씨 중 直長公派라 함은 고려조에 司醜署直長을 역임한 源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直長公 源은 송암의 10代祖로 고려말에 정국의 혼란을 피하여 나주에 퇴거함으로써 자손이 번성하여 羅州派祖가 되었다. 9代祖부터 5代祖까지는 工曹典書子를 지낸 璉, 彦典農寺를 지낸 公彦, 式目都監을 지낸 諶, 務安縣監을 지낸 自康, 將仕를 지낸 繼祖이다.<sup>6)</sup>

松岩의 高祖인 羅逸孫은 靜菴 趙光祖가 己卯年의 土禍에 피해를 당하자 평소 뜻을 같이한 동문들과 호남의 사람들이 정암을 신원하는 상소를 올려 피해를 입은 己卯黨人의 인물이다.<sup>7)</sup>

羅逸孫은 巾服徒跣으로 하향한 후 榮山江邊 侍郎山 중턱의 승지를 찾아 茅亭을 짓고 산수를 즐기며 은거생활을 하였다. 송암이 榮山江邊에 岵雲亭을 짓고 강호생활을 즐겼던 것은 선조들의 이 같은 樓亭生活의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sup>8)</sup>

松岩의 曾祖인 羅暉은 中宗朝에 司憲府監察을 역임하였으며, 士愷, 士惇, 士忱, 士揚의 4男을 두었다. 羅暉의 제3子인 錦湖 羅士忱은 송암의 祖父가 되며 旌閭 復戶의 孝行之人으로 尼山縣監과 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 義禁府

5) “遂爲州之大姓 高麗有正議大夫監門衛上將軍諱富 是鼻祖也”(『松巖遺集』卷2, 行狀, <家狀>).

6) “後至諱璉工曹典書 子諱公彦典農寺正辛禡七年 克倭有工事蹟載麗史 子諱諶式目都監 子諱自康務安縣監 子諱繼祖將仕”(上揭書, 卷2, 行狀, <家狀>)

7)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70쪽.

8) 박준규, 「송암의 수운정제영과 강호구가」, 前揭書, 181쪽.

都事 등을 지냈으며, 슬하에 德明, 德峻, 德潤, 德顯, 德愼, 德憲의 6男을 두었다.

羅士忱의 장자인 羅德明과 제2子인 羅德峻은 2책으로 된 『錦城三稿』<sup>9)</sup>를 집필하였다. 羅德明은 字가 克之, 호는 龜菴으로 벼슬이 都事에 이르렀으나 1589년 己丑獄死에 연루되어 鏡城으로 귀양 갔으며 禦計策 수천언을 상소하여 1593년 풀려나 나주에 돌아와 정자를 짓고 살았다.<sup>10)</sup>

제2子인 德峻은 곧 송암의 父親으로 字는 大之, 호는 錦岩이며,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되 과거를 위한 학문은 하지 않았다. 鄭困齋 문하에서 유학하였으나, 1589년(선조 22) 鄭汝立事件으로 己丑士禍가 일어나자 피해를 입어 복천으로 귀양을 갔다가 斗岩 金應南의 천거로 귀양살이에서 풀려나 報恩縣監에 제수되기도 하였다.<sup>11)</sup>

錦岩 羅德峻에게는 纘素, 繼素, 緯素, 致素, 經素, 緘素의 여섯 아들이 있었으며 松岩 羅緯素는 이중 제3子이다. 松岩은 운화하고 인정이 있어 친족에 선하며 벼슬 사림에 속됨을 기뻐하지 않는 성품을 지녔으며, 부인은 領議政喜의 六世孫이며 掌隸院判決事를 제수받은 顯의 따님인 長水黃氏로 슬하에 衲, 欉, 衫의 세 아들과 세 딸을 두었으며, 父·子·孫 삼대에 내외 자손이 50여 인에 이르렀다.<sup>12)</sup>

『松巖遺集』에 수록된 外孫 鄭重元이 쓴 <事實記>, 松岩의 直孫 斗三,

9) 권1: 嘯浦遺稿(羅德明著)·錦巖拾稿(羅德峻著)·錦峯拾稿. 권2: 錦湖遺事(羅斗冬編), 1739(羅斗冬 等編).

10) 『나주문집목록』(나주시문화원, 1996), 29쪽.

11) “諱德峻自少志學不屑舉業遊鄭困齋門己丑禍作被逮北遷 有還以才行被金斗岩薦累除官至報恩縣監累 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事五衛都府總副總管以先君之貴也”.(『松巖遺集』, 卷2, 行狀, <家狀>)

12) “有三男하니 衲은 戶曹正郎이요 欉은 麻田郡守요 衫은 義禁府都事라 又有三女壻하니 生員金晚壽 士人李萬鍾 縣監鄭岐壽요 衲이 生 斗三 斗章하니 斗三은 進士요 壻二人은 李暉 李潞壽요 欉이 生斗啓하니 通德郎이요 壻三人에 鄭德祥 睦昌遇 權頸라 衫이 生 斗春 斗夏 斗秋 斗冬하고 壻四人에 尹商績 李萬植 李龍徵 高可賓이요 又有庶出子三人하니 內外子孫이 三世五十餘人이라 公이 溫恭敦厚하여 善於宗族하며 交友에 不喜循俗壽善柔和 通籍三十年에 不樂於朝하고 爲州縣二十餘年에 以壽考로 閑暇江湖八十五年이라 三男이 皆在仕列하여 衲欉이 連爲近邑奉養之備하니 鄉里가 稱之以德善之報라 허라”(上揭書, 卷2, 行狀, <神道碑銘>).

斗冬 등이 쓴 <家狀>, 曾孫 晩成이 쓴 <墓誌>, 白湖 林梯의 外孫 許穆이  
撰한 <神道碑銘> 등의 자료를 통해 松岩 羅緯素의 85세 生涯를 살필 수  
있다.

松岩의 一生은 크게 학문을 익혀 벼슬에 나아가기 전까지를 修學期, 宦  
路로 나아가 벼슬을 통해 조정에 몸담은 기간을 出仕期, 퇴임 이후를 致仕  
隱退期의 3期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송암의 修學期는 1582년(선조 15)의 출생에서부터 1616년(광해 8) 과  
거에 급제하기 전 34세까지로 볼 수 있다. 송암은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  
어나 범상치 않았으며, 책읽기를 좋아하고 仲父 羅德潤으로부터 수업을 받  
았으며 나씨문중을 빛낼 인물로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sup>13)</sup> 그러나 1593년  
(선조 26) 일찍 12세에 모친상을 당하고 1609년(광해 1) 23세에 부친상  
을 겪었으며, 또 탈상도 하기 전에 계모의 상까지 이어졌다. 집안이 빈한  
해져 홀로 어렵게 학문을 하였으나 입신양명의 꿈을 안고 독실한 뜻을 세  
워 수학에 전념한 끝에 1616년(광해 8) 35세 生員試에 합격하여 國子生  
員이 되었다.<sup>14)</sup>

송암의 出仕期는 35세 이후 69세까지이다. 즉 35세인 1616년(광해 8)  
에 國子生員이 되고 1623년(인조 1) 42세 나이로 문과시험에 응시, 丙科  
에 합격하고 權知副正字를 거쳐 69세 1650년(효종 1) 慶州牧使에 제수되  
고 이듬해 季子에게 짓도록 명한 수운정으로 돌아오기 전까지이다.

43세 되던 봄에 李适의 亂이 있어 인조께서 공주로 행차하심으로 檢察  
使 趙存性이 從事할 때 察御供事平行이 되었으며 이어서 刑曹佐郎을 역임  
하고 玉果縣監을 제수 받았다.<sup>15)</sup> 1627년(인조 5)에 청나라의 침입으로 丁

13) “自幼穎異不羣稍長好讀書從 仲父諱德潤監察公受業日進 宗族鄉黨稱之曰他日振羅氏之門  
者此兒也(上揭書, 卷2, 記, <事實記>).

14) “先君以萬曆壬午十二月初一日生 自在髫髻穎脫不凡 稍長好讀書受業於仲父監察公 能致其  
才之成就宗門望其光大 鄉黨期其振耀莫不同舌稱之年十四丁內憂 二十三年外憂 居喪盡哀人  
益賢之服未闋 又遭繼母喪身世零丁家道蕩盡而篤志力學以立揚興復 爲期乃累占鄉解 萬曆丙  
辰中生員試天啓 辛酉光海遣重臣試士 湖南先君居魁直赴及第而昏朝政紊放榜遷 歷三年不行  
癸亥 仁祖政玉合丙科再試 先君又登丙科補權知校書館正字”(上揭書 卷2, 行狀, <家狀>).

卯胡亂이 일어나자 昭顯世子는 전주로 피란하고 體察使 完平 李相國이 양식을 기다릴 때에 松岩은 두루 다니며 募粟策을 강구하여 軍糧미를 모아 공급하는데 큰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sup>16)</sup> 이 때 상을 내리려고 하자 勤勞함은 당연한 직분인 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빌려 자기의 공으로 삼는 것은 사대부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며 사양하였다.<sup>17)</sup> 임기가 만료되어 地官正郎兼記注官에 승진하였다.

또한 1641년(인조 19) 여름 原州牧使로 있을 때 원주와 여주 사이에 불한당들의 출몰이 심하여 백성들의 괴로움이 많아 심히 고초를 겪는 까닭에 그들을 搜捕殆盡하자 상을 주려 할 때에도 ‘내가 전에 募粟의 상을 거절하였는데 어찌 捕賊의 상을 받겠는가’라며 정성으로 아뢰어 공을 사양하기도 하였다.<sup>18)</sup> 이러한 행적을 통해 송암은 공을 내세우기보다 백성들의 안위와 관직자로서의 올바른 도리를 강조함으로써 義와 忠을 먼저 생각하는 爲人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약 30년 동안 벼슬길에 머물면서 州府郡縣에 나아가 벼슬한 것은 20여 년으로 官事라면 정성껏 임하였고 裁決은 明敏하여 다스림에 칭송을 받았다<sup>19)</sup>고 하였으니 송암은 出仕 기간에 있어 위기 앞에서 공로를 내세우기보다 나라를 먼저 위하는 先公後私의 정신과 충효와 의리를 중시하는 강직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15) <신도비> 또는 <유지비명> 등에서는 42세 때의 일로 전하지만, 나라에서 받은 교지 및 당시에 있었던 이괄의 난 등으로 미루어 43세 때의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左參贊公 松岩 羅緯素先生 神道碑銘』, 羅州羅氏 松岩公宗中, 2006, 29쪽).

16) “世子南行全州 完平李相國以體察使 陪來念兵久糧之 以先君見居本道備諸物情 故召與計議 先君曰人情爲祖先欲榮爲子孫欲逸如給追 贈免講帖則不患不得 相國大喜授兩帖數百通使之遍 行募粟 先君隨便善措不煩括奪而得穀甚多 軍給以饒” (前揭書 卷2, 行狀, <家狀>).

17) “體相極加獎歎 將馳啓賞之公力辭以止之曰 王事勤勞職分固當藉人財 要己之功士大夫所耻也” (上揭書 卷2, 記, <事實記>).

18) “辛巳除原州牧使 明火賊出沒 原驢之境民甚苦之 先君設奇追捕就服者多 將有顯賞先君曰 吾昔辭募粟之賞 今豈受捕賊之賞乎 控懇于方伯 讓功于中軍終不居焉” (上揭書 卷2, 行狀, <家狀>).

19) “公在仕途三十年出爲州府郡縣二十二年 官事靡不恪勤 裁決明敏所在稱治” (上揭書 卷2, 記, <事實記>).

松岩의 치사은퇴기는 경주목사 벼슬에서 물러난 70세부터 마지막 別世하기까지의 기간이다. 그는 출사기간 중에도 48세(인조 7), 59세(인조 18), 63세(인조 22), 68세(인조 27) 등 5번의 還鄉이 있었다. 그러나 완전한 歸鄉은 경주목사로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간 때 70세(효종 2)이다.

1657년(효종 8) 76세에 僉正中樞府事로, 1663년(현종 4) 82세에 同知中樞府事に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1666년(현종 7) 7월 29일에 85세를 일기로 下世하였다. 임금께서 의식을 좇아 조문과 부의를 내리시고 좌참찬에 追爵하였으며, 선영이 있는 榮山의 동향한 언덕에 장사를 지냈다.<sup>20)</sup>

송암의 본격적인 岫雲亭文學 창작의 생활은 경주목사 致仕 후 70세 退官하여 長松과 脩竹 가운데 錦水湖 위의 수운정을 경영하며 체영시와 국문시조 <강호구가>를 지으며 詩友와 交遊하던 치사은퇴기라고 할 수 있다.

## 2. 松岩의 岫雲亭 經營

전남지역 중 나주·화순에 많은 누정이 건립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연 환경 여건으로 화순에는 砥石川, 同福川, 化順川, 忠臣江의 하천이 화순 군내를 관통하고 있으며, 나주지역 역시 풍부한 영산강 물줄기가 흐르고 있어 누정의 분포지역이 하천 연변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누정은 선비들의 문학 창작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세워진 위치나 그 기능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갖게 되는데, 첫째 누정은 游興賞景의 기능과 둘째 시단을 이루는 기능으로 俛仰亭詩壇이나 息影亭詩壇 등의 詩的

20) “癸卯拜同知中樞府事 凡歷仕首尾三朝也 丙午七月屬末疾篤夫人扶病出來執手問候 自多悲辭 憾容子弟宗族環侍者皆泣而先君卓然曰 汝等勿以吾於世百無一憾 當視死如歸 是月二十九日考終于外寢享年八十五計聞 上賜賻祭如儀以長子衲曾叅丙戌寧國原從一等故推 恩贈資憲大夫議政府左參贊兼知義禁府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 是年十月十二日葬于榮山辛坐乙向之原距先塋數百步許相望之罔”(上揭書 卷2, 行狀, <家狀>).

交遊의 집단을 말하며, 셋째 학문으로 修養하고 講學하며 인륜의 도를 가르치던 구실 등이다.<sup>21)</sup>

수운정은 羅州郡誌, 全南大觀 등에 榮山面 三榮里에 있다고 하였으며, 현재의 羅州市 三榮洞 榮山江邊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府尹 羅緯素의 所構로 參判 李應蕃, 監司 李萬雄의 찬시가 있었다고 한다.<sup>22)</sup> 송암이 수운정을 경영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에는 金萬英의 <岫雲亭序>, 甥孫 八溪 鄭重元의 <岫雲亭重修記>, 崔瑞璧의 <岫雲亭上梁文>, 孫子 斗冬의 <岫雲亭重創上梁文> 외에 <岫雲亭完議> 등이 있다.

송암이 수운정을 짓게 된 첫 번째 동기는 선친의 묘를 지키고 받들어 모시려는 효심에서 우러난 報本反始의 정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송암은 부모의 居喪을 잘 지냄으로써 마을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들었고 1609년(광해 1) 28세에야 장가를 들었으며<sup>23)</sup>, 또한 노쇠한 조부를 극진히 잘 모심<sup>24)</sup>으로써 효의 본을 다한 인물이다. 直孫 羅斗冬의 <岫雲亭重創上梁文>에서 ‘我祖考性本慈詳家傳孝反’이라 함은 효를 무엇보다 가장 중시했음을 짐작케 한다. 八溪 鄭重元이 쓴 <岫雲亭重修記> 서두에 ‘外祖父께서 晩年の業으로 나주 남쪽 십리 영산강 위 수운정을 짓고 강호생활과 선영의 丘墓를 지키는 일을 겸하였다’<sup>25)</sup>라고 함을 통해서도 수운정의 건립 배경을 알 수 있다.

송암은 早失父母하였으나 下世하기까지 묘를 떠나지 아니하고 新物을 보게 되면 반드시 선인의 묘 앞에 먼저 바치는 정성을 더함으로써<sup>26)</sup> 부모를

21) 박준규, 「한국의 樓亭攷」, 『호남문화연구』 제17집, 전남대학교출판부, 1987, 17~19쪽.

22) 「全南地域의 樓亭調査 報告(II)」, 『湖南文化研究』 第15輯, 248쪽(全南大學校 湖南文化研究所, 1985~1987).

23) “乙未失所恃 年甫十四甲辰服斬未及祥又有後母之喪 前後居喪觀者善之既 制除始乃授室 時年爲二十八矣”(『松巖遺集』, 卷2, 記, <事實記>).

24) “王考府君衰病 體重運動須人 公不離其側 坐臥起立輒扶持之 一唾一溺輒以器奉之 雖夜深睡熟呼即應之即起 惟命之聽之恭 王考府君 特愛重之別賜田以獎其誠孝”(上揭書 卷2, 記, <事實記>).

25) “岫雲亭子 吾外翁羅中樞公南湖晚業也 亭在羅州南十里榮山江上 先壙之下 管江湖守丘墓 蓋兼之也”(上揭書 卷2, 記, <岫雲亭重修記>).

섬기는 효성이 종가와 자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사를 지내는 일에도 정성을 다하였다.<sup>27)</sup> 또한 친척과 손님을 맞아 기뻐 즐겁게 지내며 제사 섬기는 일이 아니면 문 밖에 나아가지 않으니 고요함과 바른 성정을 얻으며<sup>28)</sup> 아들 衲와 欉이 가까운 고을 관리의 재상으로 봉양하니 항상 감동하였다<sup>29)</sup>고 하였다.

둘째는 바쁜 管路에서 물러나 노후에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면서 致仕 후 晩年の 業으로 고향의 강호에서 시적 교유를 맺으며 悠悠自適한 생활을 누리하고자 함을 짐작할 수 있다.

막내아들 衲에게 명하여 錦水 위 선영의 묘 아래에 누정을 짓게 하였다. 고향에 돌아가기를 기다려 이미 알려진 완성된 한 편의 詩文에 따라 岫雲이라 하였다. 지내는 나날 동안 친척과 옛 친구와 더불어 자연을 완상하고 한가롭게 쉬니 세월로 즐거움을 삼겠노라.<sup>30)</sup>

이처럼 송암은 慶州牧使 임기 시절 1651년(효종 2) 70세 가을 이미 늙었음에도 벼슬 또한 쉬리라 결정하고 錦水湖 위 선인의 무덤 아래 정자를 짓게 하고 수운정이라 이름 하였으니, 우거진 소나무와 긴대나무가 있고 수운정 아래로 장강과 모래사장이 가득 차 있으며, 그밖에 들에는 오랜 고

26) “公이 既早失父母라 終其身토록 不去丘墓하고 每見新物이면 必薦慕하니 或言非禮之物 커늘 公曰寧失於厚나 得盡於心이라하다 疾病에 戒其家人曰時己七月이니 宜薦稻하라 吾薦新이 畢이라하더라”(上揭書 卷2, 行狀, <神道碑銘>)

27) “先之際誠敬恒篤遇忌辰則 凡羊裘之類多般求得送于宗家以助祭 雖迫九旬而猶素食三日子弟輩切諫而不聽以所居近墓 常行新物朔望之薦 或言其非禮則曰 寧失於厚小慰吾恨至於屬饋之時猶眷眷不置謂夫人曰 七月將晦新必登宜速薦獻畢矣 以茲夫人體其意終身”(上揭書 卷2, 行狀, <家狀>)

28) “退休之志 今吾年齡已頗儕流無在不欲與邈然 年少輩奔走風塵中於是浩然而歸築亭于錦水之上先塋之麓揭石曰 出岫雲日與親賓歡謔遊玩 非祀事不出門 既得靜便願養得而宜兩子衲欉等迭宰近邑官養備至 人皆以爲榮先君恒感”(上揭書 卷2, 行狀, <家狀>)

29) “兩子衲欉相繼宰近邑便養人皆榮之 公居恒感頌曰 君恩如天”(上揭書 卷2, 記, <事實記>)

30) 命少子衲築亭于錦水上先壟下以待之 及歸亭既告成扁以岫雲而居之日與親戚故舊玩愒歲月以爲娛(上揭書, 卷2, 記, <事實記>).

목과 빈터에 피어오르는 안개가 상하 백리의 경치 속에 游處自娛하는 강호생활을 시작하였다.<sup>31)</sup> 호를 송암이라 한 것은 집 뒤 바위 위에 두 그루의 소나무가 있어 스스로 칭한 것이며, 이때부터 自號하여 南湖病叟라고도 했다.<sup>32)</sup>

영산강 주변의 그림 같은 산하를 배경으로 지어진 岫雲亭의 누정 이름은 중국 진나라 陶淵明이 지은 <歸去來辭>의 ‘雲無心而出岫’라 하는 詩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지팡이를 짚고 한가하게 쉬며 때때로 머리를 들어 먼 곳을 바라보니 욕심 없는 구름이 산봉우리 위에서 솟아나고 새는 게을리 날아 돌아올 줄을 아노라. 해는 어스레하여 장차 넘어가려 하니 외로운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배회한다. 돌아감이어. 청컨대 사귀를 그침으로써 돌아다니는 것을 끊노라. 세상이 나와 더불어 서로 어긋나니 다시 수레에 올라 무엇을 구하리오.<sup>33)</sup>

또한 송암의 莫逆한 친우인 金萬英의 <岫雲亭序>의 기록에서도 ‘흰 백발의 송암이 靑山綠水에 기거’하니 ‘처마 위의 화려한 현판은 멀리 晋나라 선비의 아름다운 구절을 서술하고, 바위 사이에 지어진 누정의 터는 가까이 朴尙公의 遺墟를 襲踏한 것이요 三逕의 風味는 思庵이 二養亭을 지은 정신과 같도다.<sup>34)</sup>’라고 하여 누정의 명명이 도연명의 귀거래사에서 연유했

31) “又明年에 爲慶州牧使하다 三年에 公이 已七年이라 嘆曰 年已老矣 官亦休矣라하고 遂決歸하고 築錦水湖上曰岫雲亭이라하니 在先壠之下라 有深松脩竹하고 長江沙渚가 瀾漫하고 其外郊原에 往往有古木墟烟이 上下百里라 公이 日游處自娛하다” (上揭書 卷2, 行狀, <神道碑銘>)

“孝宗二年辛卯秋公以慶州牧將引年歸老命季子經始築亭明年春亭成 公歸自東名其亭曰 岫雲而居之亭下一道 長江雙兩嶼 江外沙渚烟郊 上下百里 極浦遙岑雲霞出沒 朝焉暮焉四時焉 氣象萬千輪盡几席起居間 遠近冠蓋 過湖中 莫不登亭 動色曰 名勝甲湖中 公在亭上 心曠神怡 寵辱都忘 壽考康寧 優遊娛樂” (上揭書 卷2, 序, <岫雲亭重修記>).

32) “公嘗宅州之東郭下宅後石上有二松 自號松岩至是 又號南湖病叟” (上揭書, 卷2, 記, <事實記>)

33) 策扶老以流憩 時矯首而遐觀 雲無心以出岫 鳥倦飛而知還 景翳翳以將入 撫孤松而盤桓 歸去來兮 請息交以絕游 世與我而相違 復駕言兮焉求 (陶潛, 『陶淵明集』).

음을 짐작케 한다.

교유를 나눈 岵雲亭題詠의 작가 중 翠竹 李應蕃와는 1653(효종 4)과 1656(효종 7)에 왕래한 서신을 통해 정분이 각별했음을 알 수 있으며, 南浦 金萬英은 나주시 왕곡면에 있는 錦沙亭에 현액 되어 있는 <錦江重修禊序>를 쓴 인물로 <岵雲亭序>를 썼으며, 그 말미에 7언율시의 題詠詩가 덧붙여 전한다. 또한 李萬雄도 송암과 정이가 두터웠던 인물로 송암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에 곡진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셋째로 송암이 수운정을 건립하게 된 배경에는 선인들의 누정생활을 흠모한 부분과 함께 나씨 집안 문중 어른들의 누정생활의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노안면 伏岩江上에 있다고 하는 凌虛亭에는 송암의 백부인 羅德明의 누정시가 전하는 바, 伏岩江 위 누정에서 밀려드는 강물을 바라보며 한가하게 노니는 백구와 외로운 정회를 서술하고 있다.

또한 龜菴(또는 嘯浦) 羅德明은 노년에 무안의 住龍山에 있는 赤壁에 은거하여 赤壁亭을 경영했고, 叔父인 羅德顯은 만년에 나주의 潘南 白羊洞에서 潘溪亭을 짓고 누정생활을 했다. 특히 潘溪가 潘溪上의 潘溪亭에서 <漁父歌>를 짓고 逍遙自適하였다 함은 송암이 榮山江邊에서 누정을 구축하고 江湖九歌를 제작하여 어부생활을 영위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송암의 동향간이 경영해 오던 누정에는 羅宗素의 凌虛亭외에도 羅允素의 茅亭, 羅重素의 小溪亭, 羅海崙의 大谷亭과 白蓮亭, 羅海龜의 石壕亭, 羅海鳳의 溪亭 등을 지적할 수 있다.<sup>35)</sup>

이외에도 羅德峻의 後孫인 羅壽采의 所築 錦溪亭 등을 통해 누정을 경영하며 삶의 여유를 누렸던 나씨문중에 내려오는 정신적 풍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나씨 문중에 흐르는 풍류적 기풍은 송암에게도 영향을 끼쳐 수운정에서 여러 편의 누정시가 창작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34) “公之白髮蒼顏翼然高閣 謝老之青山綠水爽乎明窓 楹上華扁 遠述晉徵士之佳句 岩間傑構 近襲朴相公之遺墟 雲鳥交飛 依然三逕之風味 水月相映 恍若二亭(朴思庵卜居永平嘗作二養亭)精神” (前揭書 卷2, 序, <岵雲亭序>)

35) 박준규, 「송암의 수운정제영과 강호구가」, 前揭書, 188~189쪽.

이다. 또한 수운정 주변의 빼어난 승경을 노래한 시에는 時俗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과 하나 되어 살고자 하는 작자의 풍류가 잘 표현되어 있다.

### Ⅲ. 岫雲亭의 樓亭漢詩

#### 1. 松岩의 岫雲亭題詠

누정은 문학 창작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있었다. 누정을 경영하는 주인은 물론, 이곳을 출입하며 교유하던 문인들에 의해 누정제영이 제작되었다. 이러한 누정문학에 대한 연구 중에서 송순의 <俛仰亭歌>나 정철의 <星山別曲>과 같은 작품을 樓亭歌辭, 張復謙의 <孤山別曲>이나 松岩의 <江湖九歌>와 같은 작품은 樓亭時調로 정리한 논저<sup>36)</sup>와 漢詩로 이루어진 樓亭詩를 樓亭漢詩로 분류하는 연구 흐름에 따라 松岩의 岫雲亭文學을 岫雲亭의 樓亭漢詩과 岫雲亭의 樓亭時調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송암유집』을 보면 송암의 시가로서 漢詩 57수와 국문의 연시조 9수가 전한다. 漢詩 중 23수는 挽歌이며 일반형의 漢詩는 34수이다. 그의 시작 능력으로 보면 더 많은 작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전하는 작품 수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송암의 詩歌 중, 岫雲亭文學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작품으로는 <岫雲亭卽景> 3수, <岫雲亭卽事> 3수, 차운한 시로 <敬次凌虛亭伯父龜菴公韻> 1수, <次溪亭韻> 1수가 있으며, 국문시조인 <江湖九歌> 9수 등이 있다. <敬次凌虛亭伯父龜菴公韻>은 송암이 伯父 羅德明의 원운<sup>37)</sup>에 次韻한 누정시로 詩題에서의 龜菴은 羅德明의 호이며 懸註에

36) 박준규, 上揭書, 203쪽.

37) 客來大江口 月滿秋天清 但見白鷗面 不聞環珮聲 飛雲山欲動 浪蹙石如輕 非子吾與麗 閑談箇箇情 (손은 큰 강 포구로 찾아오니 달은 가을 하늘에 가득하다 / 다만 백구의 모습만 보일 뿐 주위에 노리게 소리 들리지 않네. / 떠가는 구름 산을 움직이고자 하니 물결은 돌마져 가벼이 옮기려는 듯하다 / 나는 함께할 짝이 없으니 나누는 閑談에 箇箇의 정분이

‘亭在羅州伏岩’이라 기록되어 있다.

능허정은 羅州郡誌, 全南大觀 등에 나주 老安面의 伏岩江 위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 누정으로 나주인 羅宗素의 所構로서 羅德明, 林愔, 金璇 등의 시가 전하고 있다.<sup>38)</sup> 백부 시의 ‘淸, 聲, 輕, 情’의 운자를 차용하여 제작한 5언율시의 <敬次凌虛亭伯父龜菴公韻><sup>39)</sup> 은 삼공의 영화도 티끌처럼 여기고 오히려 미물인 모래밭의 새를 보며 무언의 한가한 정회를 나누다는 표현을 통해 백부의 청결한 삶의 자세를 기리고 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송암의 마음과도 통하는 것이기에 七貴과三公의 영화를 티끌처럼 여길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의 <次溪亭韻><sup>40)</sup>은 溪亭韻에 차운한 溪亭題詠으로 溪亭은 원래 송암과 동향간인 南潤 羅海鳳이 소요하던 곳으로 나주의 西水口에 있었다고 전하며, 송암의 시 외에 谿谷 張維와 細庵 元斗杓의 溪亭詩가 전한다.<sup>41)</sup>

<次溪亭韻>은 수운정의 날아갈 듯한 처마의 산뜻한 모습과 오르는 오솔길의 정겨운 서경을 松·竹의 소재를 빌어 표현한 작품으로 해는 어느덧 뉘엿뉘엿 저물어 주변의 승경이 어두워져 감을 깨닫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누정 주변 경관을 시간적 추이에 따라 잘 그려내고 있다.

송암의 岫雲亭題詠으로 누정의 자연 경관과 심상에 대해 떠오르는 서정

라).

38)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全南地域의 樓亭調査 報告(II)」, 『湖南文化研究』 第15輯, 1986, 244쪽.

39) 地爽身還爽 江淸心亦淸 山舍朝雨色 灘灘暮砧聲 七貴如果塵 三公視芥輕 莫言無與伴 沙鳥共閑情 (땅이 맑으니 몸 또한 시원해지고 강물이 푸르니 마음 또한 푸르네 / 산색은 아침비 색깔을 머금고 여울물은 저녁 다듬잇돌 소리와 섞였어라 / 七貴는 쌓여진 먼지와 같고 삼공의 영화는 티끌의 가벼움을 보도다 / 더불어 짝할 이 없다 말하지 말라 모래밭의 새와 함께 한가한 정회를 나누노라).

40) 城逼山疑壓 軒高地欲浮 霞分松路細 烟帝竹籬幽 嫩綠緣溪合 殘紅映水流 此時堪北望 無日不憑樓 (성 가까이 다가서니 산이 누르는 듯 처마는 높아 땅은 날고자 하는구나. / 노을은 소나무 오솔길을 가르고 연기는 대나무 울타리를 그윽하게 감싸 안아 / 옅은 초록빛 계곡의 가장자리에 모였도다. 붉은 빛깔 흩어지며 물을 비추는데 / 이 때 북쪽 하늘 바라보니 해가 저물어 누정을 기댈 수 없구나).

41) 박준규, 「송암의 수운정제영과 강호구가」, 前掲書, 196쪽.

을 卽興的으로 노래하고 있는 <岫雲亭卽景> 3수가 있다.

倦鷺眠沙嘴	쉬던 해오라기 모래 가에서 잠들고
鷺鷥護水紋	놀란 갈매기 물결 위에 오락가락
雁添奇一勝	기러기는 기이한 일승을 더한데
叫破半江雲	우짚는 소리에 강가의 구름도 날란다.

病久夜無寐	오랜 병에 밤에도 잠들지 못하고
披衾坐却頻	이불을 제치고 앉아 절박함을 물리치니
江中聞夜話	강 가운데 들리는 밤의 이야기
知是打魚人	이는 낚시꾼의 고기 잡는 소리인 줄 알겠네

雲留簷下宿	구름은 처마 끝에 머물러 있고
潮帝檻前流	밀려오는 조수는 정자 앞에 흐른다.
世事惟呼酒	세상일은 오직 술을 청하고
生涯釣一舟	생애는 한 척 배를 타고 낚시질 하도다.

수운정 주변의 승경을 담고 있는 1수에서는 영산강의 서경을 표현하는데 물가에서 접한 鷺, 鷥, 雁을 등장시켰으며, 잔잔하고 고요한 강가 위에 우짚는 기러기 소리만이 구름과 짝을 이루고 있는 한가로운 강가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신병 얘기를 언급한 2수에서는 지병으로 늦은 시간 잠들지 못하고 전전반측하는 가운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낚시꾼의 주고받는 이야기 소리만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공허한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한가로운 삶의 노래로써 3수에서는 정자 앞에 유유히 흐르는 영산강을 바라보며 술을 벗 삼아 세상사는 즐거움을 더하는 가운데 인생을 낚시질하는 삶에 비유하고 있다.

다음의 <岫雲亭卽事> 3수 역시 수운정을 경영하면서 즉흥적으로 느낀 심정을 노래한 누정시이다.

水態山容各幻眞      물과 산의 모습 각각 환상적이며 변하지 않는데

千奇萬像盡精神	기이한 만 가지 형상에 정신을 다 뺏기네.
釣罷烟簑猶未脫	낚시질 파하고 연기 속에 도롱이 미처 벗지도 못했는데
招招舟子換魚人	낚싯배 손짓하며 어부를 부른다.

강태공이 자신의 뜻을 알아줄 선비를 기다린 곳이 위수의 낚시터였듯 선비들의 시문 속에서는 낚시하는 사유의 모습을 통해 사사로운 욕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였다. 또한 무위의 자연 속에서 순리에 따르는 조화로운 삶을 통해 인생의 흥취를 느끼고 안분지족의 태도를 노래하기도 했다. 이 누정시 또한 변함없는 산수의 절경 가운데 시절 따라 변모하는 갖가지 형상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기며 낚시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어부를 향해 손짓하는 일상의 모습을 통해 無慾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蝸角功名奈老何	하찮은 공명일랑 노인에게 무엇이 되겠는가.
藏修晚卜白丘鳥波	晩년에 도 닦을 곳은 백구 노는 물결이라
半脫烟簑紅蓼裡	紅蓼花 피어있는 안개 속에 도롱이 반쯤 벗고
一竿漁興月邊多	달빛 아래 낚시하는 어부의 흥이로다.

작가는 부질없는 부귀공명보다 마음 닦을 곳을 백구가 노니는 물결이라고 말하여 안개 속에 도롱이를 반쯤 걸치고 달빛아래 낚시에 몰입하는 흥취의 즐거움이 점점 더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紅蓼花의 꽃이름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부귀공명을 하찮은 것으로 간주하며 낚시를 통해 만년에 인생의 깨달음을 알아가는 정겨움을 더욱 깊게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飛躍天淵自是真	鳶飛魚躍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非容爾力亦非人	그대의 힘도 아니요 남의 힘도 아니라네.
色色形形隨處在	형형색색 곳곳에 남아 있음을 느끼니
神神化化一般新	조물주의 조화가 새롭기만 하구나

사시에 따라 변모하는 자연의 변화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요 사람의 힘도 미치지 않는 조물주의 창조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연의 조화에 순응하는 자세와 형형색색 계절의 변화무쌍함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며 환상적인 자연의 멋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松岩의 岫雲亭題詠은 영산강변에 세워진 수운정 주변의 여유롭고 아름다운 승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형상화하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넓은 자연의 품안에서 오직 한가롭고 편안한 어부로서의 삶을 담아내고 있다. <岫雲亭即景> 2수에서 강에서 들리는 夜話를 ‘知是打魚人’라 하였으며, 3수에서는 세상일을 즐기며 술과 함께 어부로서 ‘生涯釣一舟’라고 하였다. <岫雲亭即事>의 1수에서는 기이한 萬像에 정신을 뺏기며 낚시를 즐기는 모습을 ‘釣罷烟簑猶未脫.’라 하였고, 2수에서도 세상의 부귀공명은 노인에게는 더 이상 하찮은 것으로 안개 낀 강가에서 ‘一竿漁興月邊多’라고 인생의 흥취를 노래함으로써 자연 속에서 누리는 무욕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욕심 없는 삶과 함께 현재의 분수에 만족하는 안분지족의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敬次凌虛亭伯父龜菴公韻>에서 七貴는 쌓인 먼지로, 三公은 한갓 티끌로 여김으로써 모래밭의 새와 함께 한가한 정회를 나누는 ‘沙鳥共閑情’ 표현 속에 청결한 삶의 자세, 안분지족의 마음가짐을 그려내고 있다.

이처럼 松岩의 岫雲亭題詠에서는 정치와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수운정 주변의 아름다운 승경과 함께 안빈낙도의 삶을 누리는 어부로서의 생애에 만족하는 평화롭고 순수한 서정시의 극치를 잘 표현하였다.

## 2. 文人들의 岫雲亭題詠

나주 남쪽 십리 쯤 되는 영산강 위 나씨 선산 아래 세운 수운정은 경치도 관망하고 묘를 지키기 위해 경영한 것으로, 처음 思菴 朴相國이 세웠으며, 용강옹이 맡았다가 그의 손녀서인 송암이 뒤를 이어 맡게 된 누정임을

性孫인 八溪 鄭重元이 기록한 <岫雲亭重修記>에 서술되어 있다.

내가 들은 바로는 정각이 일찍이 思菴 朴相國으로부터 李氏를 지나서 羅氏에 이르기까지 세 번 주인이 바꿨으니 박상국이 이 강산에 터를 잡았으나 늙도록 주관을 못했고 오래 조정에 있어 다시 남쪽으로 돌아오지 못하여 고향 마을 친구 뜻으로써 龍江翁이 주인이 될 것을 허락했다. 용강옹이 이 강산을 얻어 능히 영원토록 주관하지 못하고 또 후손들이 그 대대로 그 집안을 잇지 못해서 한 구역 남은 땅이 공에게 돌아왔으니 공은 용강옹의 孫女壻이기 때문이다.<sup>42)</sup>

누정에는 함께 교류하며 출입하던 문사들의 누정제영이 현액 되어 있기 마련인데, 수운정에 당시 현액 되었을 누정제영을 찾을 수 없으나, 『송암유집』 卷之二 附錄 <岫雲亭韻>에 翠竹 李應著 3首, 鄭哲 1首, 李萬雄 1首 및 序 <岫雲亭序> 말미에 南浦 金萬英 1首의 수운정제영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송암과 깊은 친분을 맺고 교류를 나눴으며, 누정제영을 통해 수운정 주변의 아름다운 승경과 송암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심경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가. 李應著의 岫雲亭題詠

이응시의 호는 翠竹이며 임녕대군의 후손으로 나주에서 살았다. 『송암유집』 往復書에 실린 參判의 벼슬로 官界에 나가 있던 취족이 수운정에 閑居하고 있는 송암과 주고받은 여러 편의 서신을 통해 서로의 정분이 매우 깊었음을 짐작케 한다. 1653년(효종 4) 5월의 15日 서신에는 ‘저번에 제가 시를 지어 애오라지 나의 회포를 풀어서 슬픈 생각을 쏘아 그칠 뿐입니다. 어찌 감히 원운을 짓겠습니까? 이것인즉 다시 작자에게 요구한 것이 어떠한지요? 다만 한스러운 것은 정자위에서 나의 한 몸을 다하지 못한

42) 余以所聞亭之嘗 自思菴朴相國 歷李氏至羅氏 更三主朴相國卜此江山不能 終老主之久于不復南還而以 鄉里故人之意 許龍江翁爲主也 龍江翁得此江山不能永年 主之又乏後孫世其家而一區餘地歸于公 公於龍江翁孫女壻故也 (前揭書. 卷2, 記, <岫雲亭重修記>).

것입니다.<sup>43)</sup>’ 라 하였으며, 1656년(효종 7) 6월 17일의 서신에는 ‘제는 겨우 옛 형상을 의지하니 다른 것은 족히 도가 없습니다. 능히 몸을 이루어 수운정 위에서 함께 십일간을 즐거이 지냈습니다. 당신께서 은혜롭게 고기 두 마리를 보내주셨으며, 멀리서 염려하는 은근한 정을 저에게 깊게 하였습니다. 어찌 이 같은 일에 감사하지 않으리오.<sup>44)</sup>’라 기록되었으니 송암과의 두터운 情을 잊지 못하여 그리워함을 느낄 수 있다.

취죽은 <岫雲亭韻>에서 송암과 더불어 수운정에서 나는 욕심 없는 삶과 아름다운 정경을 묘사하듯 표현하고 있다. 제1수에서는 맑은 하늘과 영산강 수면 위에 비친 길푸른 산 그림자의 서경을 배경으로 높이 솟은 수운정 주변의 빼어난 승경을 표현하였다. 벗과 마주 앉아 술을 나누며 정답을 주고받는 정분은 더욱 깊어 그 곳이 바로 선경과도 같았을 것이다. 송암의 나이 80이 되어 호호백발의 호리호리한 모습을 깨끗한 학의 모습에 비유하였다.

飛亭三面散江湖	날 듯한 수운정 삼면엔 강물이 펼쳐 있어
勝地依然畫作圖	依然한 경치는 그림을 그려 놓은 듯하다
霧歛虹橋波上出	안개 속 홍예 다리 물결 위에 솟아있고
天晴螺黛鏡中孤	하늘은 맑고 수면 위에 검푸른 산은 외롭도다
常從酒戶爲賓主	항상 주막에 찾아가면 主賓이 마주앉아
欲向仙區問有無	선경을 향하고자 그 有無를 물어 본다
白髮蒼顏年八十	백발에 늙은 얼굴 나이 팔십이라
老君能似鶴清癯	老君은 학을 닮아 호리호리 하구나

제2수에서는 노년에 송암과 신선이 되어 즐기는 수운정에서의 한가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다음과 같이 담고 있다.

43) 弟重入脩門 僅支昔狀 他不足言 向奉拙製 聊以寄懷 以瀉吟悵之思而止耳 何敢作元韻此則更求於作者 如何但恨 不得致身於亭上 穩做一場軟語 奈何奈何.(上揭書, 卷2, 書, <往復書>).

44) 弟僅支舊狀 他無足道 何能致身岫雲亭上 共作十日歡也 令惠二魚非爲物也 深荷令遠念之 慙慙 何謝如斯.(上揭書, 卷2, 書, <往復書>).

亭子平臨萬里天	정자는 만리 하늘 아래 평평한 곳에 임해있고
暮年休隱二神仙	老年에 쉬면서 두 신선이 되니
一雙白鳥來窓外	한 쌍의 白鳥는 창밖에 날아들고
百尺靑龍落檻前	백 척의 푸른 용 정자 앞에 내린다.
雨過草光浮海岸	비 갠 뒤 풀빛이 해안에 떠오르니
月明人語在漁船	밝은 달과 사람의 말소리 어선에 남아있도다
憑欄恍若風生腋	난간에 기댄 황홀함에 겨드랑이에선 바람이 이는 듯
欲喚洪崖共拍肩	큰물을 부르고자 언덕에서 함께 어깨를 쳐본다.

푸른 바다와 흰 백조가 색채의 대응을 이루는 가운데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솟아있는 수운정 에서 주인인 송암과 知音의 취죽 모습은 신선이 된 듯하다. ‘창밖에 한 쌍의 白鳥가 날고 百尺의 靑龍이 정자 앞에 내린다.’라고 仙界와 같은 수운정의 勝致를 표현하였다. 고요히 어둠이 찾아와 하늘에는 밝은 달이 떠있고 아련히 들리는 말소리만이 여운처럼 남아 있는데 마치 羽化登仙이 되어 하늘을 날 것만 같다.

또한 제3수에서는 ‘정자 아래 봄은 흘러 깊고 또 깊어 가는데 수운정 위의 흰구름 편안함에 뜻이 있도다’(亭下春流深復深 出岵白雲寧有意)라 하여 자연 속에 몸을 맡기니 시간은 말없이 흘러가고 세상 욕심엔 뜻이 전혀 없다. ‘한 폭의 그림 같은 승경을 안고 있는 수운정에서 우국치신의 뜻을 다 이룰 수 없지만 석양에 술자리를 펴니 마음속 번민이 다 날아간 듯하다’(安得致身圖畫裡 夕陽開酒豁煩襟)고 노래하고 있다.

#### 나. 鄭哲의 岵雲亭題詠

정절은 진주인으로 호는 竹西이며 학문에 조예가 깊은 인물로 학자들의 질의응답에 능하였다.<sup>45)</sup> 『송암유집』 <岵雲亭韻>에 그가 제작한 7언율시의 題詠詩가 전한다.

45) 나주군지편찬위원회, 『나주군지』 제8편 인물, 1980, 749쪽.

逢迎石逕歸蒼苔	돌길에 마중 나가 푸른 이끼 사이로 돌아
携上高樓豁客懷	손을 끌며 높은 다락에 올라 쓸쓸한 회포를 씻어버리네
晴嶂巧當危檻擁	맑게 갠 산 이름답게 정자를 끌어안고
漁舟催趣暮潮回	고기잡이 배 재촉하여 나갔다 저무는 조수에 돌아온다
行人杳杳雙橋迥	행인은 아득하게 쌍다리에서 멀어지고
芳草萋萋兩岸開	향기로운 양 언덕에 풀 무성하게 피어있네
徙倚却忘歸路冥	배회하다 돌아가는 길 어두움도 잊어버렸으니
願將江水更添盃	원컨대 강가에서 한 잔 술 나누고자 하네.

누정으로 향하는 오솔길 사이로 바위에는 푸른 이끼가 덮여있고 수운정에 오르니 탁 트인 정경에 客懷도 활연해짐을 느낀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고기잡이배는 돌아오고 오가는 다리 위의 행인들도 발걸음을 재촉하며 멀어지는데 오히려 양 언덕에 풀은 더욱 무성하게 자라있다. 이곳저곳 바라보며 자연을 음미하다보니 어두움이 밀려옴도 잊어버리고, 저녁 강가에서 벗과 더불어 한 잔 술을 더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다. 李萬雄의 岫雲亭題詠

수운정을 출입하였던 인물 중 監司 李萬雄 역시 송암에게 보낸 서신 중에 ‘둘째 조카를 데리고 와서 가르치고 싶으나 천리 먼 땅에 모자가 나뉘어 떠나 있을 것에 또한 심히 걱정스러워 학문을 폐한지 오래 되었으나 과단을 내기지 못해 염려가 된다(又何望次姪切欲率來教誨而千里遠地母子之分離亦甚可愍以此尚不果焉廢學之久誠可慮也)<sup>46)</sup>’는 기록으로 가족간의 염려와 배려하는 마음을 간절히 전하고 있어 송암과 정 의가 두터운 인물임을 알 수 있다.

樓外湖江漾蒼苔	누각 바깥 호수에 푸른 이끼 출렁거리고
樓中爽氣滌煩懷	누각 가운데 시원한 바람 번뇌를 씻어버린다

46) 上揭書 卷2, 書, <往復書>.

孤雲出岵當窓見	외로운 구름 산봉우리에서 솟아 창밖을 보니
大野連天抱檻回	넓은 들 하늘에 닿을 듯 누정을 감싸 안았네
入浦商帆潮後落	포구에 들어선 장사배 조수 후에 정박하고
隔烟漁戶柳邊開	멀어지는 안개 사이 어부의 집 가에 버드나무 늘어서 있네
萍逢此地仍佳會	부평초 같은 이 땅을 만나니 거듭 아름다운 만남이여
投轄須教數喚盃	비너를 던져버리고 모름지기 술잔을 불러일으키네.

탁 트인 누정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며 세상사의 번뇌를 씻고, 눈을 들어 산봉우리에서 솟아오르는 구름을 보니 마음은 상쾌해진다. 멀리서 장사배는 포구로 들어와 정박한다. 부평초 같은 나그네 인생길에 송암과의 만남을 佳會라고 여기며, 술 한 잔을 나누는 회포의 정을 노래하고 있다.

라. 金萬英의 岵雲亭題詠

만영은 湖南人으로 호는 南浦이며, 학행이 현저하였고 숙종 때 洗馬벼슬을 내렸으나 부임하지 않았다.<sup>47)</sup> 김만영은 <수운정서>를 기록하고 그 말미에 7언율시의 시를 남기고 있다. 1665년(顯宗 6년)에 쓴 <錦江重修契書>는 나주군 왕곡면에 있는 錦沙亭에 현액되어 있는 것인데, 錦沙亭이 중수되고, 그 契會의 중수를 기록한 글이다. 금사정은 원래 중종·명종대에 송암의 고조인 나일손, 백호 임제의 조부인 임봉의 선비들이 중국 왕희지의 난정계 옛 일을 염두에 두고 금강에서 11인계를 조직하고 세운 정자이다. 임진란을 만나 소실되었다가 을사년에 永平에서 고향에 돌아온 南圃가 어른의 뜻을 받들어 11인의 옛 契券을 중수하였다고 한다. 이때 금사정도 중수되고 錦江之契를 회복하기 위해 중수를 기록한 내용이 <錦江重修契書>이다.

<수운정서> 말미에 덧붙여 전하는 남포의 수운정제영은 다음과 같다.

47) 『나주군지』, 상계서, 750쪽.

翼然高閣海山東	나는 듯한 높은 亭子 海山 동쪽을 향하고
迥壓蓬瀛氣勢雄	멀리 봉래와 영주의 仙山 누르는 기세 강하구나
鶴學西湖千古月	학은 千古의 달빛을 찾아 西湖를 찾아 날고
鵬傳南極九天風	봉새는 하늘 위 바람을 타고 南極에 이르도다
登臨抖覺神魂爽	누정에 올라 神魂이 시원해짐을 깨닫고
俯瞰還驚宇宙空	구부러 멀리 바라보니 우주의 空豁함에 놀라노라
攬舊不須興感慨	옛 것을 잡아 깊은 감흥 일지 않으려 해도
此身如寄此寰中	이 몸이 마치 仙界에 의지해 있는 듯하다

이 시는 두런부터 기세가 당당하다. ‘날 듯한 정자가 海山의 동쪽을 향해 나래를 펴고, 멀리 신선이 산다는 봉래산과 영주산의 기세를 압도하는 듯 하다’라고 하였으며, 함련의 鶴과 鵬은 수운정에서 孤高하게 살아가는 정자주인을 비유한 시어이다. 특히 학은 자연을 벗 삼아 살았던 西湖의 鶴去處土로 알려진 임포를 떠올리게 한다. 경련에서는 ‘神魂이 맑아지고 우주의 空豁함에 놀란다’고 하여 누정에 오른 소감을 시원스레 토로하였으며, 미련에서는 탁 트인 山水 속에 펼쳐진 만물을 내려다보니 마치 선계에 있다고 표현하였다. 이처럼 김만영의 수운정제영은 광활한 자연을 배경으로 활달한 기개와 함께 주변의 승경을 仙界로 표현함으로써 세속의 티끌을 묻히지 않고 살아가는 송암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송암과의 두터운 정분으로 송암이 세상을 떠날 때도 깊은 정의를 담아 쓴 挽章이 『송암 유집』에 전한다.

#### IV. 岫雲亭의 樓亭時調

##### 1. 松岩의 <江湖九歌>

송암의 누정시조인 <江湖九歌>는 경주목사를 마치고 만년에 고향인 나주의 榮江 위에 수운정을 세우고 강호한정을 즐기며 제작한 국문 시조 작

품이다. 제작 시기는 <江湖九歌> 第1首에 ‘倏然히 七十이 무니 홀일 업서  
호노라’ 와 第9首에 ‘食祿을 굿친 後로 漁釣로 生涯호니’ 의 詩句를 통해  
송암의 70세 이후의 제작임을 알 수 있다. 수운정의 건립이 송암의 나이  
70세이며, ‘경주목사 致仕 후 退官’하였다 하였으니 모든 번거로움을 떠나  
고향에 이른 이 무렵부터 강호구가를 제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江湖九歌>는 송암의 후손 집에 소장된 『나씨가승』 및 1979년 후손 羅  
容均이 편집 발행한 『松巖遺集』에 수록된 9수의 연작시조로, 강호에서 누  
리는 안분지족의 생활을 표현한 누정시조이다.

<江湖九歌>의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江湖九歌

其一

어버이 나호셔늘 님금이 먹이시니  
나흔德 먹인恩을 다 갑프라 호엿더니  
倏然히 七十이 무니 홀일 업서 호노라

其二

어의 聖恩이야 罔極홀슨 聖恩이다  
江湖安老도 分밧기 일이어든  
호믈며 두아들 專城榮養은 쏘 어인가 호노라

其三

烟霞의 김피곤 病藥이 效驗업서  
江湖에 브리연더 十年밧기 되여세라  
그러나 이제디 못 죽음도 聖恩인가 호노라

其四

전나귀 밧비모리다 점은날 오신손님  
보리피 구즌 패예 饌物이 아조 업다  
아희야 비내여 썩워라 그물 노하 보리라

其五

들끓고 바람자니 물결이 비단일다  
短艇을 빗기노하 오락가락 흥은 興을  
白鷗야 하 즐겨 말고려 世上알가 흥노라

其六

모래 우희 자는 白鷗 閑暇흥사  
江湖 風趣를 네 디닐씨 내 디닐씨  
夕陽의 半帆歸興은 너도 말만 못흥리라

其七

ㄹ눈비 빗긴브람 낮대 멘 더 하나바  
네生涯 언마치라 슈고롬도 슈롤샤  
生涯를 爲호미 아니라 漁興계위 하노라

其八

피燒酒 무우저리 우옵다 어룬 待接  
늪은 저닐은 말이 草草타 흥거마는  
두어라 니도 내分이니 分內事인가 흥노라

其九

食祿을 굶친 後로 漁釣로 生涯흥니  
험업슨 아히들은 괴롭다 흥건마는  
두어라 江湖閑適이 이내 分인가 흥노라<sup>48)</sup>

第1首는 어버이 은혜와 임금의 은덕을 다 갚을 길이 없음을, 第2首는 강호에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함과 袖과 襟의 두 아들을 보살펴준 聖恩, 第8首는 생활의 분수에 맞게 손님을 대접하는 소박한 생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第1,2首는 공직자로서 받았던, 부모의 은혜와 다를 바 없는 임금은 은덕과 第8首에서는 안분지족의 소박한 생활을 표현하였다.

48) 上揭書, 江湖曲, <江湖九歌>.

특히 第1, 2首에서는 두 아들 衲과 攀이 나주의 근읍에 머물며 벼슬하도록 하여 養親에 도움을 주도록 한 감사함<sup>49)</sup>이 담긴 시조로, 이처럼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연군을 그리는 뜻에서 제작한 작품에 7언 절구로 된 戀闕<sup>50)</sup>의 시가 있다.

十載江湖抱病身	강호에 병든 몸이 십년이 되었는데
愛君丹悵老彌新	愛君의 충정은 늙도록 더욱 새롭다
應知窓外今宵月	오늘 밤 창밖의 달은 응당 알 것이니
分照西方美一人	西方의 임을 찾아 비취주소서

<강호구가> 9首 중 특히 第3首부터 第7首까지, 그리고 第9首는 강호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어부생활의 흥취를 주로 노래하고 있다. 즉, 9首 중 위의 3首를 제외한 6首는 수운정에서의 강호흥취를 표현하였다.

第3首는 10년이 넘도록 강호에 묻혀 성운을 생각하는 煙霞痼疾의 강호생활, 第4首는 찾아온 손님을 대접할 饌物이 없어 그물을 던지는 소박한 생활, 第5首는 달밤에 조각배를 띄우고 즐기는 物外自適의 흥취, 第6首는 석양에 歸船하는 배를 보며 갈매기와 함께하는 물아일체의 즐거움, 第7首는 가는 비바람 속에 낚싯대를 멘 漁翁의 흥취, 第9首는 벼슬길에서 退仕하여 한가롭게 낚시로 소일하는 강호한정 등을 노래하고 있다.

이처럼 세상을 멀리하고 자연 속에 隱逸하는 즐거움을 모래 위의 白鷗와 함께 나눔으로써 物我一體의 경지를 한껏 표현하였으며, 석양의 半帆歸興과 생계에 얽매이지 않은 漁興을 담아내고 있다. 또한 두 아들의 영화로운 봉양과 煙霞痼疾의 깊은 병에 강호에 묻혀 10년이 넘도록 무사하게 살아감을 성운으로 돌리고 있다. 날 저물어 찾아온 손을 대접한 찬이 없어 그물을 놓아보겠다는 표현은 벼슬에서 宦路하여 소박하게 살아가는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9) 兩子衲攀相繼宰近邑便養人皆榮之公居恒感頌曰 君恩如天(上揭書 卷2, 記, <事實記>)

50) 上揭書 卷1, 詩, <戀闕>.

## 2. <江湖九歌>와 <漁父四時詞>의 相關性

송암의 <江湖九歌>는 9수의 연작시조이며 일종의 <漁父歌>인 樓亭時調이다. 국문학상 연작시조로는 맹사성의 <江湖四時歌> 4수를 비롯하여 이황의 <陶山十二曲> 12수, 이이의 <高山九曲歌> 10수, 張經世의 <江湖戀君歌> 12수, 윤선도의 <漁父四時詞> 40수, 송암의 <江湖九歌> 9수 등 여섯 편을 으뜸으로 손꼽는다. 아울러 이황의 작품을 제외한 다섯 편은 다 같은 계열의 강호가로서 시문학상 강호 한정류의 백미로 평가된다. 그중 송암의 시조는 조선 전기 강호시가의 흐름을 그대로 계승한 대표작으로 지적된다.<sup>51)</sup>

또한 <漁父歌>라 하면 「樂章歌詞」에 전하는 <漁父歌>와 농암 이현보의 <漁父長歌>, 그리고 고산 윤선도의 <漁父四時詞>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악장가사」의 <어부가>는 농암의 작품과 구별하여 흔히 <原漁父歌> 또는 <古漁父歌>라 한다. 고산은 <고어부가>와 농암의 <어부장가>를 접하고 이를 바탕으로 集古詩의 구성을 벗어나, 내용의 뜻을 풍부하게 더 넓히고 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새롭게 환골탈태하여 사시마다 각 1편 10章씩 총 40수의 연시조를 창작하였다.

조선조 대표적 연작시조인 고산의 <漁父四時詞>와 송암의 <江湖九歌>를 비교해 볼 때 드러나는 외형상 차이점으로는 먼저 <어부사시사>에 등장하는 ‘지국충, 어사와’ 등의 여음구가 <강호구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산의 <어부사시사>는 고려 때의 <고어부가>로부터 형성된 정격 어부가의 시형을 그대로 계승한 ‘지국충 노래’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고산의 <어부사시사> 40장 가운데 제1장을 보면, 뱃노래임을 표징하는 ‘배떠라, 지국충, 어사와’ 등의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51) 『左參贊公 松岩 羅緯素先生 神道碑銘』, 前掲書, 54쪽.

압개에 안개 짓고 뒤희회 히 비친다  
비떠라 비떠라  
밤물은 거의 디고 날물이 미러온다  
至지芻국松총 至지芻국松총 於어思사臥와  
江강村촌 온갖 고지 먼 빗취 더욱 도다<sup>52)</sup>

그러나 <어부사시사> 40장은 곧 40수의 작품으로 하나하나의 노래는 여음을 빼고 나면 초·중·종으로 나누어 거론할 수 있는 3행시이며, 2구 4보격의 시행으로 형성되어 이 노래가 시조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sup>53)</sup>

다음으로 내용과 구성면에서 <어부사시사>는 사계절의 승경을 각각 10수의 시행에 담되 치밀한 구성으로 아침에 배를 띄어 일과를 보내고 저녁에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출범에서 귀범까지의 하루 일정을 담아내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과정 속에 각 작품마다 어부의 생활을 아름다운 우리말 시어로 노래하고 있으며, 시적 구성 또한 유기적이고 질서 있는 긴밀한 형태를 통하여 40수의 장편 연시조가 짜임새 있게 배치되어 있다. 반면, <강호구가>는 강호에서 두 아들의 공양을 받으며 편히 늙어가는 것에 대한 임금의 은혜와 함께 계절과 시간의 순서를 구분하지 않고 사계절의 자연스런 순환 속에서 느끼는 어부의 흥취와 유유자적의 생활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작품 탄생의 공간적 배경으로서 고산이 부용동 일대에 구축한 조형자연 중 <어부사시사>의 주된 배경으로 등장하는 洞天石室은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을 이곳에 귀환하는 것으로 끝맺음으로써 동천석실이 작자에게 현실에서의 이상적 회귀처로 인식되고 있음을 말해준다.<sup>54)</sup> 그러나 <강호구가>의 수운정은 1620년(광해 12) 2월 송암이 39세 되던 해 修義副尉에 제수된 이후 1651년(효종 2) 나이 70세 경주목사를

52) 박준규, 『고산 윤선도의 생애와 문학』(전남대학교 출판부, 1997), 303~304쪽.

53) 박준규, 上揭書, 348~349쪽.

54) 김신중, 『韓國 四時歌의 研究』, 전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109쪽.

끝으로 고향에 돌아온 때까지 仕途에 머무른 30여 년을 마무리하고 치사 은퇴 후 유유자적하는 강호생활을 시작하는 안식처의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외형상 여음구 유무와 내용 구성 외에 조선조 대표적 연시조이며 어부가라 칭할 수 있는 고산의 <漁父四時詞>와 송암의 <江湖九歌> 두 작품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어부사시사>가 갖는 뱃노래임을 뜻하는 여음구의 반복을 제외하면 두 작품이 아름다운 강촌에서 어부의 은일적 흥취를 표현한 어부가로서 연시조라는 공통점이 있다. 언급한 것처럼 고산의 <강호사시사>는 春·夏·秋·冬 四時에 각 1편이요, 각 편은 또 10장씩 총 40장의 연시조로 여음구를 갖는 어부가이며, 송암의 <강호구가>는 여음구는 없으나 유유자적한 강호의 생활을 노래한 9수의 연시조라는 점에서 형태상 공통점을 갖는다.

둘째, 작품이 창작된 공간적 배경이 명분과 실리를 앞세우는 세속과 거리를 둔 강과 바다라는 점이다. 고산이 보길도를 찾게 된 동기는 51세 때(인조 15) 병자호란 시 三田渡에서 ‘城下之盟’의 치욕스런 和議가 이루어졌음을 듣고 치욕을 잊고 은둔하고자 제주도를 향하던 중 佳境의 보길도를 발견하고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향년 85세 되던 1671년(현종 12) 부용동의 낙선재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수차에 걸쳐 십수 년 동안 보길도에서 생활하게 된다.

<어부사시사>는 고산이 65세(효종 2) 때 창작한 작품으로 보길도의 자연 환경을 그 배경으로 삼았으며, 송암은 영산강변에 수운정을 짓고 강호구가를 창작함으로써 두 작품이 현실을 벗어난 無慾의 공간으로서 강호를 배경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두 작품의 상관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요소에는 같은 남인 계열로서 두 사람의 인간적 교유의 친밀성과 작품이 창작된 시대의 동일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송암 나위소는 고산 윤선도와 조선 전기 같은 남인으로서 兩者의 믿음과 교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이러한 友誼는 『송암유집』에

서 바다를 사이에 두고 보길도와 수운정 사이에 서신으로 왕래한 여러 편의 <往復書>와 고산의 장자인 윤인미와 주고받은 서신에서도 양가 사이의 정의를 짐작해 볼 수 있으며, 특히 송암의 별세에 고산과 윤인미는 만장을 써서 그의 죽음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병자년 12월 10일의 서신에서는 ‘인간의 만나고 합함은 운수일 따름이나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한가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한 것이 인간사에 가히 기약하기가 어려움<sup>55)</sup>’을 통해 마음처럼 쉽게 만나지 못하고 단지 서신만을 주고받는 아쉬움을 전하고 있다.

송암의 나이 76세 때 송강 정철을 받들던 사람들에 의해 己丑獄死가 다시 거론되었다. 羅氏側에서 건립한 困齋祠堂은 이때에 헐리었다. 錦湖 羅士沈은 송암의 祖父로 금호의 여섯 아들 중 羅德明, 羅德峻, 羅德潤 등은 困齋 鄭介淸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가 기축옥사 때 곤재와 함께 화를 입었다 풀려나기도 하였다. 남인들이 정개청 선생을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를 올리자, 때에 정철의 당은 다시 권력을 부려 임금께 아뢰어 사당을 헐어 버리니, 고산은 이에 대해 상소를 올렸으며, 송암은 스스로 꾸짖어 이르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음이 심히 부끄럽다<sup>56)</sup>고 하였다.

이처럼 정유년 가을 곤재 정개청의 사당이 허물어져 수리하는 것에 정철이 반대하자 송암과 같은 남인 계열인 고산이 이에 대한 부당함을 상소를 통해 변론해 주었던 것에 대한 감사함을 항상 잊지 못하였던 것이다.

송암은 고산보다 5세 年長이지만, 양자는 매우 가까운 知己之間이었는데, 고산이 보길도에서 어부생활을 영위하여 어부사시사를 제작한 1651년 (효종 2)은 송암이 강호구가를 지은 때와 거의 같은 무렵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 같은 풍류생활의 동일성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55) 人間會合 數也而會合之時與地 亦無非數也 況雲泥困忙 會合於湖山勝地 人事之可期乎 而兄與我累書復數還可笑也 諸餘伏枕忘言所祝行李萬相 伏惟心諒 謹拜謝狀 上丙子臘十日服人善道拜(上揭書 卷2, 記, <往復書>).

56) 困齋祠被毀 當路爲鄭澈傳法沙門又迫捏之也 尹參議善道上疏卜之不得入 公私自憤歎曰 今日隻手孤撐賴有尹約而耳 吾輩有生何愧也.(上揭書 卷2, 書, <往復書>)

다.57)

이처럼 송암이 <강호구가>를 제작한 것은 경주목사에서 물러난 이듬해인 나이 70세 이후로 고산이 보길도에서 <어부사시사>를 제작한 辛卯年과 비슷한 시기이다. 두 사람 모두 영산강과 남해 바다를 곁에 두고 현실 정치 세계에서 물러나 안식처를 경영하며 자연 속에서 어부의 흥취를 누리는 가운데 어부가라 할 수 있는 연시조를 창작한 것은 앞으로 두 작품의 상관성에 대해 깊은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 V. 맺음말

누정은 대부분 지적 교양인이 시문을 닦은 곳이자 講學의 장소로 이용되었으며, 뜻을 같이하는 문인과의 교류를 통해 문단을 형성하고 시문학이 잉태된 문학 창작의 주요 공간이다. 선비들은 누정의 경영에 관심을 가졌으며, 現官에서 退官한 선비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의 누정에서 학문과 시문을 담론하기도 하고, 管路에서 물러나 老年의 거처로 여겼던 것이다.

송암 나위소는 1582년(선조 15) 나주에서 출생하여 1666년(현종 7)에 향년 85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한 조선조 仁·孝宗代의 나주 인물이다. 수운정을 건립하고 누정제영을 창작한 그의 생애와 문학은 후손이 撰한 『松巖遺集』에 전해진다.

영산강변에 건립되었던 수운정은 현재 그 터만 남아 있으며, 건립의 배경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선산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다음으로는 致仕 후 노년의 생애를 보내기 위해 지은 것으로 교류를 나누며 주변의 승경을 노래함으로써 수운정제영을 창작하는 작품 산실의 역할을 하였으며, 세번째는 친척과 선조들의 누정 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57) 박준규, 「송암의 수운정제영과 강호구가」, 전계서, 1989, 202쪽.

이처럼 송암은 1651년 나이 70세 경주목사를 끝으로 고향에 돌아와 선산 아래 榮山 三榮里 榮江 위에 수운정을 경영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한 수운정제영과 국문 시조인 9수의 연시조 <江湖九歌>를 창작하였다.

누정에는 이를 경영하는 누정의 주인은 물론 함께 교유하며 출입하던 문사들의 누정제영이 현역 되어 있기 마련인데, 『송암유집』에는 翠竹 李應蓍, <錦江重修禊序>를 쓴 南浦 金萬英, 李萬雄, 鄭哲 등의 수운정제영이 기록되어 전한다.

송암의 詩歌 중 누정제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작품으로는 <敬次凌虛亭伯父龜菴公韻> 1수, <次溪亭韻> 1수, <岫雲亭即景> 3수, <岫雲亭即事> 3수, 국문시조인 <江湖九歌> 9수 등이다. <敬次凌虛亭伯父龜菴公韻>은 伯父 龜菴公의 능허정시에 차운한 시로 삼공의 영화를 버리고 자연과 벗하는 물외한정의 즐거움을 표현하였으며, <次溪亭韻> 역시 소나무와 대나무로 둘러싸인 계정 주변의 선경을 노래하였다. 그리고 <岫雲亭即景> 3수, <岫雲亭即事> 3수의 수운정제영은 나주 영산강을 배경으로 산수의 아름다움 속에 江湖勝致를 즐기며 욕심 없이 살아가는 넉넉한 자연관을 그림으로써 서경과 서정이 조화를 이룬 순수 서정시의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江湖九歌>는 9수로 된 누정시조로 고산 윤선도의 <漁父四時詞>와 같은 계열의 어부가로 생각되며, 자연과 벗하며 無慾의 어부 삶을 살아가는 강호생활의 유유자적함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송암과 고산은 같은 남인 계열로서 『송암유고』에 실린 <왕복서>와 <사실기>를 통해 兩者의 돈독한 우의를 짐작할 수 있는데, <강호구가>는 <어부사시사>와 함께 연시조의 형태가 같으며, <어부사시사>가 제작된 1651년에 <강호구가> 역시 이 무렵에 제작한 것으로 생각되어 강호에서 누리는 풍류생활의 동일성에서 잉태된 두 작품의 상관성을 더 깊이 연구해 볼 과제를 앞으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松岩公宗中, 『松巖遺集』, 1979.
- 나주군지 편찬위원회, 『羅州郡誌』, 1980.
- 나주나씨문집목록, 나주시문화원, 1996.
- 羅州羅氏 松岩公宗中, 「左參贊公 松岩 羅緯素先生 神道碑銘」, 2006.
- 學民文化社, 『詳說 古文眞寶大全 後集』, 1992.
- 김신중, 「韓國 四時歌의 研究」,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박준규, 「한국의 樓亭放」, 『호남문화연구』 제17집, 전남대학교 출판부, 1987.
- \_\_\_\_\_, 『고산 윤선도의 생애와 문학』,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7.
- \_\_\_\_\_, 「송암의 수운정제영과 강호구가」, 『어문논총』 10·11,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89.
- \_\_\_\_\_,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羅州地方樓亭文化의 綜合的 研究」, 1988.
- \_\_\_\_\_, 「全南地域의 樓亭調査 報告(I)」, 『湖南文化研究』 第14輯, 1985.
- \_\_\_\_\_, 「全南地域의 樓亭調査 報告(II)」, 『湖南文化研究』 第15輯, 1986.
- \_\_\_\_\_, 「全南地域의 樓亭調査 報告(III)」, 『湖南文化研究』 第16輯, 1987.
- \_\_\_\_\_, 「全南地域의 樓亭調査 報告(IV)」, 『湖南文化研究』 第17輯, 1987.

<투고일 : 2006. 6. 30. 심사일 : 2006. 7. 15. 심사완료일 : 2006. 7. 31.>

<Abstract>

## Song-am, Na Wi-so and The Literature of Soowoonjung

Yu, Soo-yang

Naju which is surrounded by mountains, plains, and rivers has abundant products and its unique agricultural culture. So, many writers in Naju lived a poetical life based upon this excellent environment. These features after all have made Naju the space of creative literature. According to the research of Jeonnam(from 1985 to 1987), the existing Nujungs in Naju are 59 dong. On the other side, the total figures of Nujung, said *Najugunji* made by Na Do-sun, etc., are about 300 dong.

Song-am, Na Wi-so(1582~1667) had lived from Sun-jo dynasty to In-jo dynasty and we can learn his life and works through *Songamyugip* compiled by his posterity. It is said that there were two pine trees behind his house. So he made his pen name Song-am and after that, he would use a self-made one. He was also called Namhobyongsoo.

In Accordance with *Jeonnamdoji*, Soowoonjung where Song-am had spent his retired life was located in Yongsan riverside, although it is now nonexistent. Here Song-am wrote Nujungjeyoung which praises the beauty of Soowoonjung and *Ganghoguga* which is Nujung Si-jo 10 pieces.

In general there are a lot of Nujungjeyoungs written by the owner of Nujung as well as its visitors in Nujung. In *Songamyugip*, there is *Soowoonjungjeyoung* by Chi-juk Lee Ung-si, Nam-po Kim Man-young, Lee Man-ung, and Jeong Jeol.

Nujungjeyoungs in Song-am's Si-ga are as follows. *Gyongchanungherjun-gbaekbuguiamgongwoon* 1 piece, *Chagyejungwoon* 1 piece, *Soowoonjungj-ukgyong* 3 pieces, *Soowoonjungjuksa* 3 pieces, and *Gangjoguga* 9 pieces which are Korean Si-jo.

*Gyongchanungherjungbaekbuguiamgongwoon* which chants happiness out of riches and honors rhymes with Baek-bu Guiamgong's *Nungherjungsi* and *Chagyeyungwoon* praises beautiful scenery of Gyejung surrounded by pines and bamboos. And *Soowoonjungjaeyoung* describes generous view of nature which can enjoy the beauty of nature out of the social and political conflicts. It is a lyric poem with Youngsang river as its setting. *Ganghoguga* is a Nujung Si-jo made by 9 pieces. It is considered to belong to a kind of fisherman's song like Go-san Yun Sun-do's *Euhbusasiga* and shows us the life free from worldly cares.

Song-am and Go-san are both the school of Namin. We can guess their friendly relationship through *Wangbokseo* and *Sasilgi* in *Songamyogo*. Moreover *Euhbusasiga* and *Ganghoguga* had same form and also wrote same period. So it is thought that both works come from the same environment where their writers enjoy their life as well as write on a similar subject.

**Keywords** : Song-am, Na Wi-so, Soowoonjungjukgyong, The Literature of Soowoonjung, Ganghoguga, Nujungjeyoungs

K C I